파업에… 휴가에… 영업일수 줄고 생산 차질

기아차 내수·수출 '급브레이크'

8월 한달 9만7,080대 판매…7월보다 23.4% 줄어

휴가철에 임금 협상을 둘러싼 노조의 파업까지 겹치면서 기아차의 지난달 국내 판매 및 수출이 전달보다 격감했다.

1일 기아차에 따르면 지난달 총 판매대수는 9만7천80대로 전월에 견줘 무려 23.4%(2만9천723대)나 줄었다. 노조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휴가(주말 포함 최장 9일)로 인한 영업 일수 부족으로 국내 판매는 전달(3만4천811대)에 비해 27.7%(9천627대) 감소했고 수출은 7만1천896대로 전월(9만1천992대)보다 21.8%(2만96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주력 차종인 쏘울과 카렌스, 봉고트럭의 생산·판매도 모두 하락했다.

쏘울의 경우 지난달 국내 판매대수는 1천41대에 그쳐 7월(1천976대)보다 935대 줄었고 ▲카렌스 654대(7월 779대) ▲스포티지 1천501대(〃 2천890대) 등으로 감소했다. 쏘울은 수출도 지난달 4천448대에 불과, 전달 7천577대를 판매한 것에 비해 무려 3천129대나 감소했다.

판매 뿐만 아니라 지난달 광주공장 생산량도 4차례의 부분파업에 잔업·특근 거부까지 겹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달(2만6천970대)보다 58% 줄어든 1만1천230대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9천410대)보다 42%나 줄어든 것이다. 수출물량은 7천980대로 전달(1만7천720대)보다 55%, 전년도 동기(1만4천220대)대비 44%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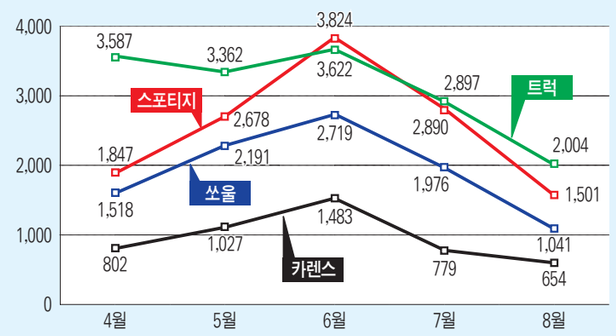
쏘울은 지난달 5천250대를 생산, 7월 8천690대를 생산한 것에 비해 39.6% 감소했고 카렌스는 전달(3천520대)보다 34.7% 감소한 2천290대를 생산하는데 그쳤다. 봉고트럭도 전달(5천640대)보다 37.5% 하락한 3천530대만 생산했다.

반면, 기아차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내수는 8.1%, 수출은 2.8%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4.1% 늘었다. 회사 측은 내수의 경우 5월부터 적용된 노후차량 세제지원 혜택이, 수출은 유럽과 중국 정부의 자동차시장 지원책에 힘입어 해외 생산분 판매가 많이 늘어난 것이 각각 판매 증가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내수 시장에서 경차 모닝이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며 지난해 동기대비 47.5% 증가한 7천285대가 판매돼 8월 내수판매를 이끌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 차종별 국내 판매 실적



기아차가 출시한 2010년형 쏘울 튜온 스포츠 데칼. 차량표면에 스티커 등을 붙여 스포티함을 살렸다. 〈기아차 제공〉

기아차 2010년형 쏘울 출시… 실내디자인 더 세련되게

기아차는 1일 실내 디자인을 개선하고 소비자 선호 사양을 추가한 2010년형 쏘울을 출시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생산하는 이 모델은 자동변속기 손잡이를 인조가죽으로 감싸고 계기판 주변에 고급 블랙크롬 도금을 적용한 게 특징이다.

팔걸이와 수납공간을 겸용할 수 있는 '콘솔박스'를 설치하고 에어컨과 오디오 조절 버튼, 주차 제동장치 손잡이 등에도 블랙크롬 도금을 입혔다. 16인치 플라워 휠, 무선 리모컨키와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 등을 편의사양으로 갖춘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기아차는 휘발유 모델에 이어 디젤 모델에도 경제운전 안내시스템을 적용했고 계기판에 평균 연비와 순간 연비, 주행 시간, 주행 가능 거리 등을 표시해 주는 트립 컴퓨터를 집어넣었다. 소음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에 흡음재 등을 삽입해 정숙성을 향상시킨 점도 장점이다.

기아차는 이외 쏘울의 외장을 개성있게 꾸밀 수 있는 다양한 튜닝 용품을 선보였다. 차량 표면에 스티커 등을 붙여 단조로운 색상이나 외부 디자인에 변화를 주는 '데칼' 제품으로 색상 3종을 추가했고 엠블렘, 가니쉬 등도 다양화했다.

가격은 ▲휘발유 1.6 모델 1천301만~1천863만원 ▲휘발유 2.0 모델 1천700만~1천958만원 ▲디젤 1.6 모델 1천537만~2천132만원 등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8월 무역흑자도 큰폭 줄어

8월 무역흑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며 지난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식경제부는 1일 지난달 수출이 작년 동기대비 20.6% 감소한 290억8천만 달러, 수입은 32.2% 줄어든 274억1천만 달러, 무역흑자가 16억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8월의 수출 감소율은 7월(-21.8%)보다는 다소 개선된 것이며 수입 감소율 역시 7월(-35.7%)보다는 개선된 것이다.

그러나 8월의 수출금액은 7월(320억2천만달러)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여기에는 8월 초에 집중된 휴가와 작년 8월 대비 조업일수 감소, 선박인도 스케줄로 인한 선박 수출 감소, 자동차업계의 파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는 액정 디바이스 수출액이 31.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선박(-33.6%) 수출이 줄어드는 등 자동차 등 여타 주력 수출품목은 모두 감소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光銀-광역경제권사업단

금융지원 협약

광주은행은 1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과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협약식에는 송기진 광주은행장과 남기석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장 등이 참석했으며 금융지원 협약을 통해 광주와 전남·북의 호남광역경제권 선도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동북아 태양광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친환경 하이브리드자동차 부품사업 등 4개 프로젝트를 말한다.

/장필수기자 bungy@

光銀, 중기 추석자금 1,000억 대출

광주은행은 1일 "추석을 앞두고 자금 애로를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긴급 지원하고자 이날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1천억원의 '추석 특별 운전자금 대출'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의 이번 '추석 특별 운전자금 대출'은 추석을 전후해 체납임금 지급, 원자재 구입 등 일시적인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이번 대출의 한도는 업체당 10억원이며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최고 1.0%포인트까지 우대 적용한다.

하지만 숙박·주점업 등 사치 향락업종과 부동산중개업 및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광주은행 기업고객본부 정찬주 본부장은 "이번 대출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 애로 해소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 은행으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